

## 광주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강화 총력

광주시 의약단체장 간담회·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활성화 논의 등 예방접종·수시환기·마스크착용·개인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의미하는 코로나19 주간 발생률이 지난 6월23일 기준 10.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6월28일 8.9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6월28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광주시도 6월30일 기준 9.6명, 7월 3일 10.9명, 7월6일 14명, 7월10일 20.6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 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하위변이(BA.5) 확산에 따른 재감염 사례 증가 ▲예방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1일 박유

환 광주시의사회장, 형민우 치과의사회장, 김광경 한의사회장, 박춘배 약사회장, 김숙정 간호사회장 등 의약 단체장과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소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 유관 기관장이 함께 '협업 간담회'를 열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확진자 증가에도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수행하는 '호흡기환자 진

료센터'로 324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156개소를 지정한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확산에 대비해 호남권역 병상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과 분만, 소아, 정신환자 등을 위해 특수 병상을 운영키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고, 복지시설 내 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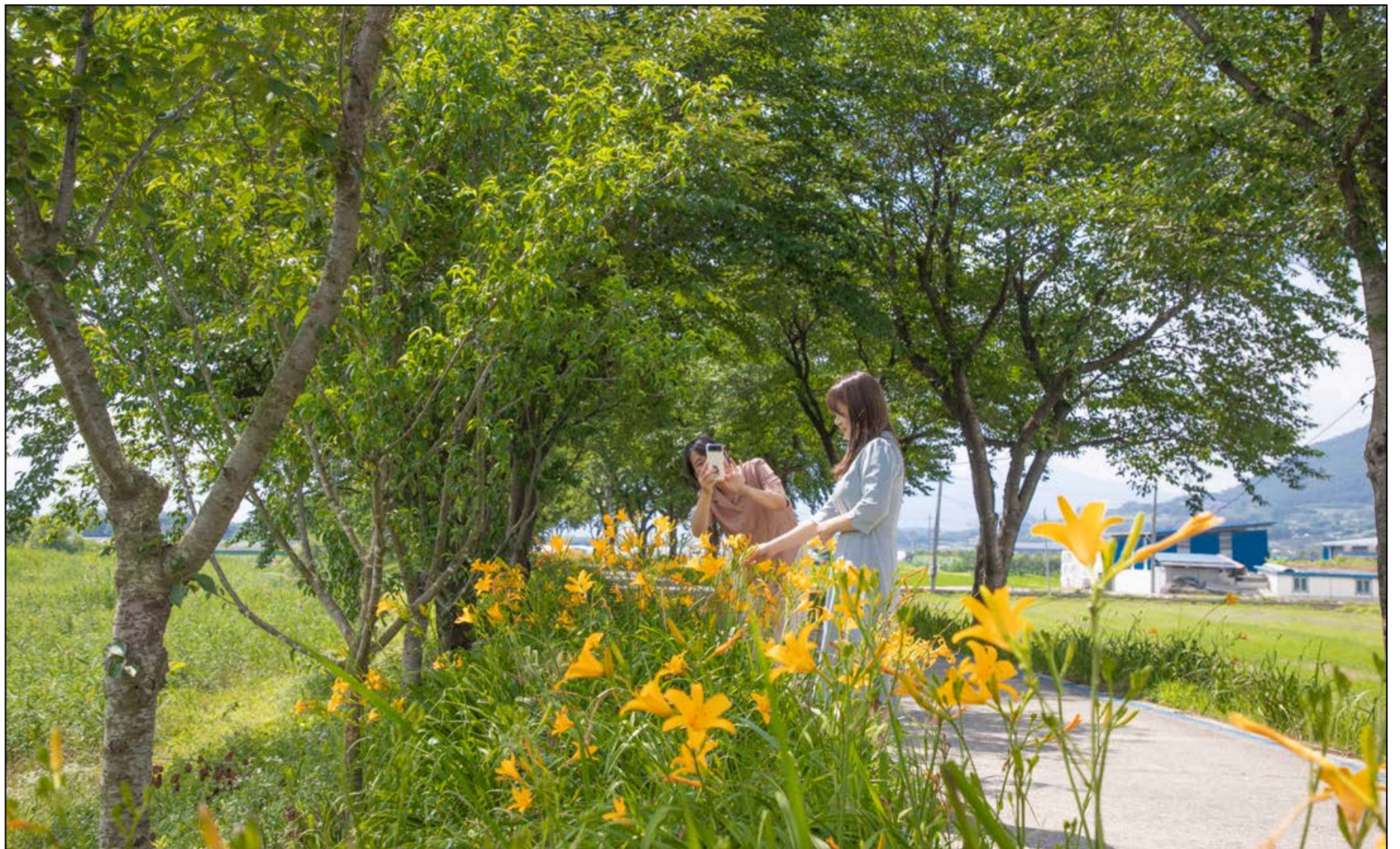
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검사 지속 실시, 4차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인력 역량교육과 요양시설 현장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5천803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수칙 준수 홍보·교육·점검을 강화하고, 개인, 직장,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냉난방기기 사용법 등 4대 분야별 생활 방역수칙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시 각종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하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이 오더라도 지역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예방접종과 함께 수시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청결 유지 등 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빈기자

## 전남,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구축 의무화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했고, 지난 5월 말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 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사육값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운 시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기본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22건이, 야생멧돼지에서 2천636건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미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불벌 더위를 잊게 하는 여름꽃 원추리. 불벌 더위를 잊게 하는 여름 꽃의 향연이 숲길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계절이다. 기다란 꽃대 위에서 수줍은 듯 언분홍 자태를 뽐내는 원추리는 여름철 야생화의 대명사로, 이 즈음 전남 구례군 섬진강 서시천변 지리산둘레길을 따라 산과 들을 연노랑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구례군 용방면 지용관부터 서시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까지 약 4km 구간에 원추리 꽃이 피어 주민과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구례군 제공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